윤석열 대통령(오른쪽 넷째)이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(왼쪽 셋째), 추경호 원내대표, 정점식 정책위의장, 성일종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과 만찬을 하고 있다.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 비대위원들을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했다.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고,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.김 대변인은 “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,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”이라고 말했다. 황 비대위원장은 “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간 협력을 강화하겠다”고 화답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.이날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선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, 엄태영·유상범·전주혜·김용태 비상대책위원, 정점식 정책위의장, 성일종 사무총장,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,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.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, 홍철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.